



현대통신 신임 대표이사에 양한호씨 선임

홈네트워크 통합솔루션 전문 기업인 현대통신이 양한호 전 인천국제공항철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했다. 경희대 상과를 졸업한 신임 양한호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건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사우디 주재 중동 본부장 및 해외영업 본부장을 맡아왔으며, 투자법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. 현대통신은 양한호 사장이 그동안 쌓아온 건설 및 SI분야의 노하우와 해외영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통신을 세계적인 홈네트워크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특히, SI사업 영역의 확대 및 신규사업 육성과 해외시장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한국전자거래진흥원 신임 원장에 한영수씨

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김종희 원장의 후임으로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. 신임 한영수 원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상공부와 통상산업부, 산업자원부에서 통상협력심의관 생활산업국장, 자원정책심의관 등 산업 전반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로, 최근까지 한국무역협회 전무를 지냈다. 한 원장은 취임식에서 “국내 e비즈니스 시장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”이라고 진단하고, “향후 진흥원의 역할도 이에 걸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” 며 말했다.



주니퍼네트웍스 영업 총괄 상무에 이만석씨

주니퍼네트웍스가 신임 엔터프라이즈 영업 총괄 상무로 이만석씨를 선임했다.

신임 이만석 상무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, 주니퍼에 합류하기 전에는 삼성전자, 시스코시스템즈 코리아, 어바이어 코리아 등 국내외 굴지의 IT 회사를 두루 거치며 NI, SI 사업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. 또한 이 상무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업체인 아이페이스 코리아의 자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. 국내 엔터프라이즈 영업 및 시장 전략 전반을 총괄하게 된 이 상무의 영입과 함께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영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정보통신부

- ▲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 배석희
- ▲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전파이용CS센터장 김동술
- ▲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최진
- ▲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기획연구과 황수연
- ▲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(울산우편집중국 개국준비반) 조철석
- ▲남울산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심용하
- ▲부산국제우체국 소포우편과장 신상욱
- ▲부산우편집중국 기술과장 이능문

정보통신정책연구원

- ▲기획조정실장 선임연구위원 서보현
- ▲미래전략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강홍렬
- ▲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 연구위원 초성운
- ▲공정경쟁정책연구실장 연구위원 김형찬

▲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연구위원 고상원

- ▲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연구위원 김철완
- ▲경영전략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윤석현
- ▲사무과장 1급 행정원 김연

특허청

- <4급>
- ▲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신창우
- ▲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송원선
- ▲전기전자심사본부 반도체심사팀 정희환
- ▲정보통신심사본부 통신심사팀 하유정
- <전보>
- ▲특허심판원 심판관 고준호
- ▲특허심판원 송무팀 김경욱